

“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옛 본성 즉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사람이다. 기질상 노함과 분을 제거하고, 언어상 횡방과 욕설과 거짓말을 끊어 버리고, 원리상 죄의 뎀은 죽고 죄에게 중노릇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아(自我)를 가리킨다.

새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죄 문제에서 풀려나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한 내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새롭게 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인종적 차별이 없고 헬라파나 무할레파 즉 종교적 구별이 없고 야만인 스키타아인이나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인을 구분치 않는다. 종이나 자유인 즉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간을 나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셨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성정도 없다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유일한 표지는 인종 종교 문화 경계 성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곧 만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본질상 모든 것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곧 거룩함, 성결함, 순전함, 영원함 진실로 그 분이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소유한 각 개인도 그렇다. 이 보배같은 주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 여러분이 깨달고 믿으시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 하지 않았다. 새사람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약간은 인정하나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하지만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한 이로 보기엔 어렵다.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의로 덮으신다. 성화나 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보혜사·변호인이 필요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만유시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불같은 화살을 쏘고 죽이려 덤벼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시오 갑주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만유시다. 세상과 싸울 때도, 시험이 와도, 가난과 질병이 덮쳐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만유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차별을 넘어 만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와 우리 원수 사이에서도 만유이시며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리인으로 만유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소망을 둘 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통로로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충이시고 만유의 총체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 과거의 죄는 지워 버리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 주시고 미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의 만유시오, 바라는 것의 만유시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만유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좋은 약은 많이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 안전, 신성, 평화, 풍성, 아름다움, 치유, 도움, 위로, 정복, 생명, 승리, 영생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제국의 황제보다 부요한 자요, 그 분을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 되었다고 두려워 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의 만유이시니 그 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새사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497호] 2016년 3월 19일 발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파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초등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

선 교 사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해경,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나영·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트(바베이, 필리핀, 프랑스, 루시, 수버스, 알로로, 비니(브도, 보디(도, 린트, 수원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p>천국시인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고전 1:1-3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평강을 원하지만 불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살이가 다 그러합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의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습니다.

1. 은혜와 평강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와 평강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간이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인생마다 가지는 그 눈물 계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은혜와 평강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참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만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쓰라린 고통들을 몰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 깊게 패인 계곡처럼 질곡의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 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때문에 원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으라

은혜와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3절에서도 누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15-16절, 갈라디아서 4:6, 고전 12:3은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3.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한 것은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들도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만이 가진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값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화목은 자기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맺는 말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순종하심이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로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을 베풀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나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렘 33:3...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6(사순절 3)...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539(483)...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4-9...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302(408)...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례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6:1-2 인 도 자
찬 송	391(446)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롬 13:8-10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성도(2)” ... 인터넷 영상
찬 송	552(358)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일예배	
(개 인 기 도)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민박우강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나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1:3)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p>◆ 알 림</p> <p>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p> <p>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p> <p>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p> <p>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p> <p>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p> <p>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p> <p>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p> <p>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p> <p>11. 이번주 심방 일정 3-2, 9-1, 12-1, 13-4다락방</p>	<p>◆ 장 레</p> <p>1. 이 재만 집사(11교구 이난희 권사의 부친, 이용성 집사의 장인) / 7일(토) 별세, 9일(월) 천국환송예배</p>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2,064명	437명	2,501명	1,73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3/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8일	헌 금	18,048,000	
	찬양운영비		7,140,000
	선 교 비		100,000
	출 판 비		200,000
	복리후생비		87,000
	통 신 비		537,140
	수도광열비		699,480
	차량유지비		80,100
	소모품비		486,370
	수선유지비		527,000
	식당운영비		277,040
	합 계	18,048,000	10,134,13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 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